

# 김마리아의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에 대한 조선과 일본 언론의 반응

양 현 혜\*

## 목 차

- I. 머리말
- II. 김마리아와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
- III.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에 대한 일본 언론의 반응
- IV.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에 대한 조선 언론의 반응
- V. 맺음말

**국문초록** | 본 논문은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에 대한 일본과 조선의 언론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양국 사회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 운동의 위상을 1919~1921년 당대의 관점에서 가늠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고쿠민신문(國民新聞)』,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 『요로즈초호(万朝報)』, 『미야코신문(都新聞)』,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등 다섯 종의 신문이 총 여덟 편의 기사를 통해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언론은 ‘선교사 배후설’ 내지 ‘선교사 영향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독립운동에 있어서 조선인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조선인의 정치운동을 끝없이 외부에 의해 시주·선동된 운동으로 폄하하려는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나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을 계기로, 일본 주요 언론들이 김마리아를 비롯한 조선 여성 운동가들의 성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3·1운동 이전 일본 신문들이 조선 여성들을

---

\* 梁賢惠,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yanghh@ewha.ac.kr  
투고일: 2020. 10. 29. 심사완료일: 2020. 11. 25. 게재확정일: 2020. 12. 6.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0.39..131>

단순히 ‘여학생’ 혹은 소속 학교나 단체의 이름으로 뭉뚱그려 다루었던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점에서, 김마리아는 일본 사회가 가진 종래의 조선 여성관에 균열을 일으켰으며, 그가 주도한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조선 여성들을 조선 남성들에 버금가는 독립운동의 주체로서 자각하게 만든 최초의 계기 중 하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조선 언론의 경우, 『매일신보』가 24편, 『조선일보』가 19편, 『동아일보』가 37편의 관련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여기에 해외에서 활동했던 언론 『독립신문』의 기사 6편, 『신한민보』의 기사 한 편을 더해 총 87편의 조선 언론 기사가 대한민국애국부인회와 그 회장 김마리아에 대해 다루었다. 본고는 해당 기사들을 분석함으로써, 김마리아와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을 통해, 3·1운동 전후 고조되는 민족주의의 물결 속에 있었던 조선 사회가 사실상 처음으로 독립운동가로서의 조선 여성들의 정치적 주체성을 자각·수용하게 되었음을 주장한다. 물론 당시 조선 사회의 지배적인 인식에 따르면, 여전히 독립운동이란 주류 엘리트 남성이 주도하는 것이며, 여성 주체들은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제 막 이러한 민족주의적 흐름 속에 인정되고 포함된 것일 따름이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김마리아와 대한민국애국부인회가 향후 여성운동과 독립운동이 교집합을 이루어가며 전개될 일련의 역사적 과정에서 하나의 원점으로 부상했으며, 이러한 의미를 당대의 조선 언론들이 포착하고 있었다는 데에는 일정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김마리아, 대한민국애국부인회, 3·1운동, 여성 항일운동, 조선 민족주의

## I. 머리말

2000년대는 항일운동 연구사에 있어서 여성사적 전환이 일어난 시기였다. 종래의 엘리트 남성 중심의 독립운동사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여성 주도의 운동들이 본격적으로 조명되기 시작되었던 것이다. 구한말 및 1910년대의 경우, 여성들이 의병활동, 국채보상운동, 송죽회 등 비밀결사 활동, 3·1운동, 여성교육단체의 저항운동,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1920년대와 1930년대를 대상으로 각 지역에서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단체 항일운동, 근우회 운동, 여학생들의 학생운동 참여, 여성 노동자들의 적색 노동조합운동, 여성 농민들의 적색 농민조합,

해녀들의 항일운동 등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많은 여성 항일운동가들에 관한 전기적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었다.<sup>1)</sup>

이러한 여성 중심의 항일운동사 연구의 흐름 가운데 특히 많은 주목을 받은 두 인물을 꼽자면 아마도 유관순과 김마리아가 있을 것이다. 유관순은 3·1운동의 상징적 존재였으며,<sup>2)</sup> 김마리아는 한국 여성독립운동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운동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주도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sup>3)</sup> 관련 연구들은 지금까지 대체로 현재적 관점에서

- 
- 1) 이준식,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여성 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1, 2009;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의 연구동향과 현대여성의 역할」, 『민족사상』 5-3, 2011; 이배용, 「중국 상해 대한애국부인회와 여성독립운동」, 『이화사학연구』 30, 2003; 하희정, 「3·1운동 이후 기독교의 사회적 실천과 여성 농촌운동: 감리교와 김노독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역사』 48, 2018; 김은실, 「제주해녀의 주체성과 제주해녀 항일운동」, 『국가와 정치』 16, 2010; 3·1여성동지회 편, 『한국여성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18; 신성환, 「여성독립운동가 윤희순의 현실인식과 대응」, 『동양고전연구』 71, 2018; 강운정, 「여성독립운동가 남자현의 항일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4, 2018; 이영재, 「남자현의 독립운동 前史: 이주와 행적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8, 2019; 황미숙, 「이효덕의 항일민족운동과 절제운동」,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4, 2019; 박상준, 「1920~30년대 평양 지역 여성운동의 전개와 성격: 평양여자기독교청년회와 근우회 평양지회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1, 2020.
  - 2) 임성규, 「유관순 연구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유관순연구』 11-11, 2007.
  - 3) 김마리아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 김영삼, 『김마리아』, 태극출판사, 1975; 박용옥, 「김마리아의 망명생활과 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2, 1999; 노영희, 「항일운동가, 김마리아의 민족혼에 대한 자각과 실천과정」, 『인문학연구』 7, 2001; 박용옥, 『김마리아: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했다』, 흥성사, 2003; 김호일, 「기독교 교육가 김마리아 연구」, 『人文學研究』 36, 2003; 김경일, 「식민지 시기 신여성의 미국 체험과 문화 수용: 김마리아, 박인덕, 허정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1, 2006; 윤정란, 「황애덕과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승실사학』 22, 2009; 유준기, 「김마리아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보훈논총』 8, 2009; 이선이, 「선각자 김마리아에 대한 선교적 조망」, 『선교신학』 44, 2016; 이달순, 「독립운동과 김마리아」, 3·1여성동지회 편, 『한국여성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18; 유준기, 「김마리아의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애국부인회」, 3·1여성동지회 편, 『한국여성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18; 황민호, 「김마리아의 국내에서의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유관순과 김마리아의 생애를 재구성하고 그들의 행보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괄목할 만한 선행연구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1919년을 전후하여 주요 여성 독립운동가의 등장을 당시의 일본 사회와 조선 사회가 어떻게 인식했으며, 또 그러한 여성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나갔는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간 연구의 공백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사료를 발굴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이 보충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이미 학계에 제기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sup>4)</sup>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고는 김마리아와 그가 1919년에 주도한 이른바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을 일본과 조선의 주요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최근 새롭게 발굴되어 사료집으로 간행된 일본 주요 언론들의 3·1운동 보도를 중심으로 김마리아와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에 접근한다.<sup>5)</sup> 이를 통해, 본고는 김마리아와 대한민국애국부인회가 일본의 조선 여성 인식에 균열을 내고 일본 사회가 주체적 독립운동가로서 조선 여성들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당시 조선 사회가 민족주의를 구상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정치적 주체성을 사실상 처음으로 적극 포함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어질 주요 일본 언론 사료는 있는 『고쿠민신문(國民新聞)』,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 『요로즈초호(万朝報)』, 『미야코신문(都新聞)』,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의 기사들이다. 조선의 관련 사료는 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민족지적 성격의 『신한민보』를 참고했다. 후술한 바와 같이 일본과

구』 99, 2019.

4) 이송희, 「일제 강점기 국내 여성 항일운동의 연구현황과 과제」, 3·1운동 100주년 기념 이화여대 심포지움 『3·1운동, 여성 그리고 이화』(2019.3.15) 미발표 원고, 118쪽.

5) 양현혜, 박은영, 김도형 엮음, 『3·1운동 일본 언론 매체 사료집 세트』(전6권), 홍성사, 2019.

조선의 이들 언론은 각각의 언론 속성에 따라 김마리아의 행보를 보도함에 있어서 상이한 논조를 드러냈다. 기존의 김마리아 연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이러한 언론 자료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본고가 김마리아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I. 김마리아와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

김마리아는 1892년 황해도 장연군 소래마을에서 태어났다. 한국 개신교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세워진 이 마을의 계몽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그는 해서제일학교와 연동여학교에서 수학하게 된다.<sup>6)</sup> 이어서 김마리아는 일본 유학길에 올라 히로시마여학교(広島女學校)를 거쳐 1915년 도쿄의 일본여자학원(현 도쿄여자대학교) 영문과에 진학했다. 여기서 김마리아는 도쿄여자유학생회 제2대 회장이 되어 한국 여성들을 계몽·계발시키기 위해 잡지 『여성계』를 간행했다. 또한 도쿄여자유학생회의 회장으로서 김마리아는 이광수, 김도연, 백관수, 서춘, 최팔용 등과 함께 도쿄 유학생들이 주도한 1919년 2·8 독립선언에 깊이 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선여자유학생친목회를 대표하여 30원을 헌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언서 말미의 재일본 도쿄 조선청년독립단 대표 11인 중 자신뿐만 아니라 그 어떤 여성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sup>7)</sup> 이에 김마리아는 여성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 또한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

6) 선행연구들이 이미 잘 분석했듯이, 김마리아의 가문과 소래마을에서의 기독교 수용은 훗날 김마리아의 생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전병무, 『한국 항일여성운동계의 대모 김마리아』, 역사공간, 2013, 8~20쪽; 김정인, 소현숙, 예지숙, 이지원, 『3.1운동에 앞장 선 여성들: 김마리아, 권애라, 김향화, 박자혜』, 역사공간, 2019, 10~20쪽.

7) 박용욱, 앞의 책, 2003, 146쪽.

점을 절감하게 되었다. 결국 목전에 앞 둔 일본여자학원 졸업을 포기하고 김마리아는 2·8 독립선언서를 숨겨 귀국했으며, 곧이어 전국적으로 여성들을 규합하여 3·1독립운동으로 귀결되는 일련의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분투했다.

3·1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한 김마리아는 3월 5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평양감옥에서 6개월간 취조를 받았다. 독립운동은 ‘정의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던 그에게 제국 일본은 혹독한 고문을 가했다. 그 결과 그는 상악골 충농증과 귀 뒤의 뼈에 고름이 생기는 ‘메스토이’라는 평생의 지병을 얻게 되었다. 결국 병이 악화되자 김마리아는 1919년 8월 4일 증거불충분으로 예심면소(豫審免訴) 판결을 받고 출옥하게 되었다.<sup>8)</sup> 출소 이후 정신여학교로 돌아온 김마리아는 그곳에서 근무하던 후배인 장선희, 신의경, 김영순 등과 함께 여성독립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성을 절감했다.

3·1운동 전후 항일 여성운동 단체로는 혈성부인회와 대조선독립부인회가 있었다. 전자는 정신여학교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단체로, 주로 3·1운동으로 인해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의 복역 뒷바라지 및 그 가족의 생계 지원 활동을 전개하던 조직이었으며, 후자는 보통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자 가운데 애국심이 강한 독실한 기독교 여성들(백신영, 유인경, 김영순, 유보경 등)이 주도하여 결성한 단체였다. 바로 이 두 단체가 청년외교단 간부 이병철의 중개를 계기로 통합됨으로써 1919년 6월 대한민국애국부인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통합된 애국부인회는 지방에 다수의 지부를 두고 활동했으나, 김마리아가 출옥했을 당시에는 이미 그 활동이 침체에 빠져 있었다.<sup>9)</sup>

김마리아는 대한민국애국부인회가 활성화되어야 비로소 조선 여성들이

8) 「애국부인단의 상고는」, 『동아일보』, 1921.3.29.

9) 단운 선생 기념 사업회, 『만년 꽃동산 장선희 여사 일대기』, 인물연구소, 1985, 131~133쪽.

상하이 임시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1919년 9월 19일, 김마리아는 자신과 황애시덕의 출옥 환영 위로연을 구실로 정신여학교 구내에 있는 천미레(Lillian Dean Miller) 선교사 사택에 몇몇 여성 동지들을 불러 모았다. 참석자는 김마리아, 황애시덕, 장선희, 김영순, 신의경, 백신영, 유인경, 이혜경, 이희경, 홍은희, 유보경, 이정숙, 이성완, 정근신, 오현관, 오현주 등 16인이었다.<sup>10)</sup> 이날 이들은 조선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독립운동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조선 전국 각 도에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지부를 설치하고 회원을 모집해야 한다는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날 회의를 통해 김마리아는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회장직을 맡게 되었으며, 부회장 이혜경, 총무 및 편집원 황애시덕, 서기 신의경·김영순, 교제원 오현주, 적십자 회장 이정숙·윤진수, 결사장 이성완·백신영, 재무원 장선희 등과 임원단을 이루어 조직을 재편했다.<sup>11)</sup> 김마리아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애국부인회가 탄생한 것이었다. 비록 이 새로운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기존의 조직에 바탕을 두고 있었지만, 종래의 애국부인회와는 그 방향과 목적을 달리하는 조직이었다. 후자의 활동이 주로 임시정부를 후원할 목적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하여 송금하는 것에 국한되었다면, 전자는 국내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결사부와 적십자부를 조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상하이 임시정부와 발맞추어 독립 전쟁을 준비하고자 했다.<sup>12)</sup>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취지문은 회장인 김마리아가 직접 작성했다. 그 시작은 다음과 같다. “고어(古語)에 이르기를, 나라를 내 집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가족의 집이지만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제 집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집이 성립하지 못하고, 나라는 국민의 나라이라 국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보존치 못할 것은 우부(愚夫)·우부(愚

10) 「可驚할 秘密結社」, 『每日申報』, 1919.12.19.

11) 「兩團體가 打撃을 受함」, 『독립신문』, 1920.1.1.

12) 서광일, 「이혜경 지사의 항일 독립운동과 정신」, 3·1여성동지회 편, 『한국여성독립운동가』, 841쪽.

婦)라도 밝히 알리되다. 개인이 집을 잃어도 이웃집의 수모가 막심하거든 민족이 제 나라를 잃으면 이웃 나라로부터의 수욕(受辱)이 어떠하리오.” 더 나아가 김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여성들이 독립 운동에 참가하여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과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오호라. 우리 부인도 국민 중의 일본자로 본 회가 설립된 지 수년 이래로 적의 압박을 입어 어떠한 곤란과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 은근히 단체를 이루며 비밀히 규모를 지켜 장래의 국가 성립을 준비하다가 독립국 곤란 중에 부인도 십(十)에 이(二)가 참가하여 세계의 공안(公眼)을 놀라게 하였으나 이것에 만족함이 아니오. 국권과 인권을 회복하기로 표준삼고 전진하며 후퇴하지 아니 하니 국민성 있는 부인은 용기를 함께 분거(奮擧)하여 이상을 상통(相通)할 목적으로 단합을 위주하여 일제히 찬동하심을 천만 위망(爲望) 하나이다.<sup>13)</sup>

이 취지문에는 여성 또한 한 명의 국민이라는 자각과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자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조선인으로서의 김마리아의 민족적 정체성과 여성으로서의 성적 정체성이 동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신된 대한민국의국부인회는 첫째, 국내 각 중요지점에 지회를 설립하고 회원 획득에 주력할 것, 둘째,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문서를 인쇄해 전국에 배부할 것, 셋째, 결사대로 별동대를 조직해 상하이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각 방면에서 금전을 모집하고 대한민국의국부인회의 대표를 상하이로 파견해 임시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것, 넷째, 적십자사를 조직하고 세계에 대한민국의국부인회의 목적을 선전할 것 등을 당면 사업으로 설정했다.<sup>14)</sup> 이러한 핵심 활동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국부인회는 3:1운

13) 박용욱, 앞의 책, 2003, 203~205쪽.

14) 「화제의 김마리아양 (1)」, 『동아일보』, 1932.7.29.

동 이후 최대의 여성조직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1월 말 이른바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이 발생한다. 즉, 동지인 오현주의 밀고로 애국부인회 간부들이 일제히 검거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1919년 11월 28일, 김마리아는 장선희, 김영순, 신의경, 황애시덕, 이정숙, 이성완, 김희옥, 성경애, 박순복, 김태복, 오현관 등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핵심 간부들과 함께 대구경찰서 제3부로 압송되었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애국부인회 검거의 전말을 보고했다.

본년 4월 이후 경성을 중심으로 각지의 예수교도로서 조직한 대한애국부인회(별명 대한독립애국부인회)라는 불온단체가 있음을 경상북도 제3부에서 탐지한 이래 수사 속행 중인 바, 이번에 유력한 증거품을 입수하고 또한 그 관계도 대략 판명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11월 28일 관계 각 도 제3부와 연락을 가지고 일제 검거에 착수했으며, 또한 속행 중이다. 그 개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로 상세히 후보(後報)하고자 한다.<sup>15)</sup>

또한 이 보고서의 ‘범죄의 개요’에는 애국부인회의 활동상황이 다음과 같이 상술되고 있었다.

1) 본 회는 본년 4월 설립 이래 소위 상하이정정부(上海假政府) 및 재외 불량선인(不良鮮人)과 기맥을 통하여 경성에 본부를 각도 추요지(樞要地)에 지부를 설치하고 독립사상의 선전, 불온문서의 배포, 회원모집 및 독립운동 자금의 모집 등에 종사하였다.

2) 회원은 각지를 통하여 백 수십 명이 있어 입회금이라 하여 금원(金員)을 각출케 한 것이 56명에 미치고 그 금액은 1,174원에 달한다. 또한 동 회의 자금 중에서 약 6천원을 독립운동 자금이라 하여 소위 상하이정정부에 제공

---

15)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1, 東京: 原書房, 1967, 221~223쪽.

한 사실이 있다.<sup>16)</sup>

경상북도 경찰국 제3부에 체포·연행된 애국부인회 관련자는 김마리아를 비롯해 총 52명이었다. 이 가운데 회장 김마리아는 석방 후 6개월 만에 재투옥된 중범(重犯)이었다. 일본의 연호를 모른다고 하며 서력으로 연호를 말하는 김마리아에게 일제는 재차 모진 고문을 가했다. 그가 들것에 들려서 겨우 재판에 출석했을 때, 담당 검사는 김마리아에 대해 ‘일본의 국적(國賊)’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추상열일(秋霜烈日)같은 별을 내려 박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7)</sup> 독방에 수감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은 결과, 김마리아는 ‘산송장’과 같은 위중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3·1운동 이래 조선인이 당하는 참상들을 외국에 알리기 위하여 노력했던 세브란스 병원의 스코필드(Frank W. Schofield) 박사 등이 중심이 되어 대구지방법원 검사국과 보석 허가를 교섭하게 되었다. 결국 김마리아는 1920년 5월 16일에 보석되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7월 3일 수술을 받기에 이른다.

이러한 가운데 체포된 52명 중 43명은 불기소 방면되었으나, 제령(制令) 제 77호 위반이라는 죄명이 붙여진 김마리아를 비롯한 핵심간부 9명에게는 6월 29일 제1심 판결이 언도되었다. 김마리아, 황애덕에게는 징역 3년, 장선희와 이정숙에게 징역 2년, 김영순, 유인경, 이혜경, 신의경, 백신영에게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되었다. 병보석으로 요양 중인 김마리아를 제외한 다른 애국부인회의 간부들은 혹독한 복역 생활을 버텨내야 했으며, 장선희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겨울은 겨울대로 살을 에는 듯한 혹한을 견뎌내기에 힘겨웠지만……찌는 듯한 여름철에는 굴속 같은 감방 안의 변기통에서 풍겨 나오는 악취가 코를 찔러 숨통이 막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감방 벽 틈에 끼어있는 빈대가 줄을 지어 사정없이 습격을 하는가 하면, 모기들의 공세가

---

16) 金正明 編, 위의 책, 224쪽.

17) 「대한청년외교단과 대한애국부인단의 제1회 공판방청 속기록」, 『동아일보』, 1920. 6.11.

제트기와 같았으며, 벼룩이 옷 사이로 뛰어 들어와 따끔따끔 물어뜯는데도 일어나서 털 수조차 없었다.”<sup>18)</sup>

이상이 3·1운동 전후 시기까지의 김마리아의 항일 여성운동과 대한민국에국부인회 사건의 주요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이하에서는 일본과 조선 언론이 대한민국에국부인회 사건과 김마리아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김마리아의 행보

날짜	사건
1919년 11월 28일	김마리아 체포
1920년 5월 22일	고문에 의해 사경을 헤매게 되어 병 보석으로 출감, 대구 동산(東山)의 선교사 블레어 집으로 거주를 제한 당함.
1920년 6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제1회 공판이 열림. 김마리아와 황에스터에게 5년 구형. 그 외 사람들에게는 3년을 구형함.
1920년 6월 29일	대구지방법원 언도 판결 법정이 재개. 김마리아는 병세의 악화로 불참 김마리아, 황에스터는 징역 3년, 장선희, 김영순, 이해경, 김원경은 징역 2년, 백신영, 유인경, 신의경, 이정숙은 징역 1년을 언도받다.
1920년 7월 1일	세브란스 병원 입원.
1920년 7월 8일	1차 수술
1920년 7월 26일	2차 수술
1920년 12월 15일	대구복심법원(지방고등법원) 제 1심 공소 공판을 위해 대구로 가다.
1920년 12월 16, 17일	제1심 공소 공판에 출두.
1920년 12월 27일	제1심과 동일 판결.
1921년 1월 22일	경성고등법원(대법원)에 상고.
1921년 1월 31일	경성고등법원에서 사실을 진술.

18) 단운 선생 기념 사업회, 앞의 책, 1985, 180쪽.

1921년 2월 12일	경성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이 법리의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경성복심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반환.
1921년 4월 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판을 하려 했으나 김마리아의 병으로 연기.
1921년 4월 중순경	성북동 농가에서 요양.
1921년 5월 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판을 받다.
1921년 5월 1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언도, 이에 김마리아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1921년 6월 20일	경성고등법원(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 당함.
1921년 7월 21일	상하이 임시정부 교통부 참사 윤응념에 의해 중국 위해위(威海衛)에 도착함으로써 망명 성공.

### III.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에 대한 일본 언론의 반응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을 가장 먼저 보도한 일본 신문은 『고쿠민신문(國民新聞)』이었다. 『고쿠민신문』은 1919년 12월 18일자로 「독립 음모의 조선 부인 검거. 조선애국부인회라는 이름 하에 13도에 비밀결사를 조직. 30명을 일망타진」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경상도 제3부의 발표에 의하면, 조선 대구 예수교 부인 중 조선애국부인회라는 이름으로 사적으로 독립 분자를 모집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 조사한 결과, 금년 9월경부터 그들은 경성에 본부를 두고 13도에 지부를 설립하여 독립운동을 하고 있음이 판명되어, 그들을 체포하여 취조했다. 그 결과, 그들은 조선인이 조직한 청년외교단이라는 비밀결사와 연결되어 있음이 판명되어 조선 부인 30명을 체포하고 이들을 대구 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했다. 그들의 배후에는 미국 여선교사 34명과 배일(排日)을 주장하는 유력한

조선인들이 있다.<sup>19)</sup>

『고쿠민신문』은 1890년 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峰)가 발행한 신문으로 청일전쟁과 삼국간섭 이후부터 일본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어용신문’이라고 불렸던 『고쿠민신문』은 당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언론이었다. 또한 도쿠토미 소호는 1910년 경술국치 이후 테라우치(寺內) 총독의 요청으로 조선에 와 총독부 기관지 운영에 관한 약정을 맺고 『경성일보』의 경영과 인사권을 통솔하는 감독이 되었다. 도쿠토미는 1910년 10월부터 1918년 7월까지 약 8년간 『경성일보』의 최고 책임자로서 조선총독부의 언론 정책 및 테라우치 총독의 식민 통치에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고쿠민신문』의 기자와 경영자들은 도쿠토미의 결정으로 조선에 파견되어 『경성일보』에 깊이 관여하면서 일찍부터 조선에 관해 풍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고쿠민신문』이 조선의 『매일신보』보다 하루 앞서 12월 18일 대한민국애국부인단 사건을 보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sup>20)</sup>

아직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이 기사는 애국부인회를 청년외교단과 연결되어 있는 조직으로 본 조선총독부의 초기 시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 여성들의 정치적인 주체성을 간과한 채, 조선 여성들의 배후에 유력한 남성 조선인들과 미국인 여선교사 34명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여선교사 34명’과 관련된 오보를 통해서, 조선인들의 정치적 주체성을 저평가하는 동시에 재조선 선교사들의 존재를 식민 통치의 위험요소로 간주했던 당시 일본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처음으로 여성들이 주체가 된 독립운동 단체를 거명하며 ‘결사조직’이

19) 「獨立陰謀の朝鮮婦人檢舉. 朝鮮愛國婦人會の名の下に 十三道に秘密結社を結ぶ. 三十名を一網打盡」, 『國民新聞』, 1919.12.18.

20) 『고쿠민신문』의 특징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박은영, 「고쿠민신문에 나타난 3.1운동」, 『일본비평』 21, 2019.

라고 제법 비장하게 보도한 것 또한 눈에 띄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종래 일본 언론들이 조선 여성들을 두고 ‘남녀학생’이라고 하며 남학생과 함께 뭉뚱그려서 지칭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이라는 집합명사로 취급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애국부인회에 대한 상세한 보도는 점차 일본 사회가 저항운동의 주체로서 여성의 위상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sup>21)</sup>

이어서 다음날인 19일 『고쿠민신문』은 「조선음모의 부인 검거자 경상북도 경무부의 발표 혈사단장(血死團長)[결사대의 오기] 등의 대조직」이라는 소제목으로 이 사건을 더욱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조선 대구 예수교 부인 중 사적으로 독립 분자를 모집하는 단체가 있음을 알고 혐의자를 체포하여 대구 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한 것은 이미 보도한 바와 같다. 검거자는 다음과 같다.

경성부 회장 정신여학교 교사(예수교 장로파) 김마리아(金瑪里亞, 26)[김마리아(金瑪利亞)의 오기]

경성부 서기 정신여학교 교사 신의교(辛義敎, 22) [신의경(申義慶)의 오기]

동 재무원 장선의(張善義, 24) [장선희(張善嬪)의 오기]

동 서기 동상 김영순(金英順, 25)

적십자 사원 경성 기독교 세브란스병원 간호원 이정숙(李貞淑, 22)

결사장(決死長) 경성기독교 남감리파 배화여학교 교사 이성완(李誠完, 23)

편집원 경성 가정교사 황애시덕(黃愛施德, 26)

지부장 경상북도 대구 무직 유인경(兪仁卿, 25)

지부장 결사장 경상북도 부산 백배애(白培愛) [백신영의 오기]

지부장 전라북도 군산 이리아(李利亞) [이마리아의 오기]

지부장 경상남도 진주(晉洲) 박보교(朴寶喬)

지부장 동상 박순복(朴順福)

---

21) 예를 들어, 「別動隊は女學生」, 『東京朝日新聞』, 1919.3.10; 「女學生に拘留狀」, 『東京朝日新聞』, 1919.3.11. 등을 참조.

지부장 동상 박덕보(朴德寶)

지부장 전라북도 군산 이백희(李百禧)

또한 관계자로서 아직 체포되지 않고 검거 수사 증인자는 다음과 같다.

.....

통신원 전라북도 옥황군(沃潢郡) 이순길(李順吉, 여),

경성 이화학당(梨花學堂)梨花學堂의 오기[학생 김백전(金百全, 여),

동 김신애(金信愛, 여), 김원경(金元慶, 여)

대표자(현재 상하이에 있는 회원 총대표로서 여러 교섭을 행하고 있었다고 한다)”<sup>22)</sup>

비록 김마리아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의 성명과 이화학당을 오기(誤記)하고 있지만, 조선 여성의 이름이 일본 언론 매체에 구체적으로 거명된 것은 이 기사의 사례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여성이 독립운동가로서 일본의 시야에 비로소 포착되게 된 것이다. 조선 여성을 독립운동의 당당한 주체로 인식하게 된 일본 언론의 당혹감은 대한민국의국부인회의 '결사대' 조직을 '혈사대'라고 잘못 칭하는 부분에서도 엿볼 수 있다.

1919년 12월 19일에는 『고쿠민신문』 이외에 『요로즈초호(万朝報)』, 『미야코신문(都新聞)』,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 등 세 신문이 대한민국의국부인회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요로즈초호』는 1892년 11월 구로이와 루이코(黒岩涙香)에 의해 창간된 당시의 대표적인 대중지였고, 1894년 9월부터 일본 신문으로는 최초로 영문 기사를 게재했다는 점에서도 독자성을 지닌 매체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신문은 애국부인회에 대해 두 편의 기사를 실었다. 첫 번째 기사인 「독립 음모의 조선부인검거」는 12월 18일자 『고쿠민신문』 기사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곧 「조선독립의 음모」라는 사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애국부인회 사건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드러냈다.

---

22) 「朝鮮陰謀の婦人檢舉者 慶尙北道警務部の發表 血死團長等の大組織」, 『國民新聞』, 1919.12.19.

조선 독립의 음모를 획책한 조선 부인 30여명은 체포되었다. 정부는 조선에서 우리 정부(政務)에 다대한 혁신을 가함과 동시에 불량선인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그 죄책을 규탄하고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한다.<sup>23)</sup>

이 기사는 3·1운동의 발발 원인을 무단통치와 동화주의에서 찾으며, 일본의 식민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을 ‘음모’ 혹은 ‘폭도들의 소요’로 규정하고, 군대를 동원해 이를 철저히 진압할 것을 주장하는 등 당시 일본 언론의 전반적인 논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 또한 확인할 수 있다.<sup>24)</sup>

한편 『미야코신문』은 1888년 창간된 신문으로 초기에는 연예 방면을 특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다가 1919년 이후 경제 분야의 기사를 확충함으로써 도쿄 도심부 전역에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25만 부의 발행 부수를 기록하는 신문으로 성장했으며, 애국부인회 사건 당시에는 도쿄 지역 신문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보급된 신문 중 하나였다. 『미야코신문』은 애국부인회 사건과 관련하여 12월 19일 「음모선인검거」와 12월 20일 「조선비밀결사단 소탕」이라는 두 기사를 연이어 게재했다. 그 주된 내용은 전원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불량한 부인들 집단이 애국회를 만들어 상하이임시정부를 도왔으며 청년외교단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고쿠민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조의 보도였다. 특히 기사들은 “3·1운동 이후, 늘 문제의 초점에 있는 미국인 경영의 세브란스 병원 간호원이 대거 관계하고 있어 평양 세브란스 병원이 문제”라고 전했다.<sup>25)</sup> 여기에서도 전원이 기독교인인 점과 선교사가 그 배후에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기독교와 재조선 선교사에 대한

23) 朝鮮獨立の陰謀, 『万朝報』, 1919.12.19.

24) 이규수, 「3·1운동에 대한 일본 언론의 인식」, 『역사비평』 62, 2003.

25) 「陰謀鮮人檢舉」, 『미야코신문(都新聞)』, 1919.12.19.; 「朝鮮秘密結社團の掃蕩」, 『미야코신문(都新聞)』, 1919.12.20.

강한 적대감과 조선인의 정치적 주체성에 대한 부정이 공통적으로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기사에서는 비록 그 한자명이 김마리아(金摩利亞)라고 잘못 표시되어 있지만, 회장인 김마리아(金瑪利亞)를 실명으로 보도한 것이 눈에 띈다.

한편 1888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여 일본의 대표적인 일간지로서의 위상을 가진 『도쿄아사히신문』도 12월 19일자에서 「기독교도로 구성된 조선 부인 읍모단, 청년외교단의 검거를 통해 폭로된 14명 체포, 수괴는 묘령의 여교사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경성을 중심으로 조선 각지의 기독교도로 조직된 대한독립에국부인회는 올해 4월 설립 이후 소위 상하이정부(上海假政府) 및 내외 불량선인과 기맥을 상통하며 경성에 본부, 각도 요지에 지부를 두고 늘 청년외교단이라 칭하는 비밀결사와 연락하여 독립 사상의 선전, 불온 문서의 배포, 회원 모집 및 운동비의 징발 등에 종사해 왔다. 회원은 백수십 여 명으로 6천원을 독립자금으로 상하이정부에 제공하는 등, 은밀히 활약하고 있었다. 앞선 청년외교단의 검거, 증거 서류의 압수에 의해 발각된 이래 경상북도 경무부에서 내사하여 11월 28일 각도 경무부와 일제 검거에 착수하여 7일까지 14명을 체포하고 계속하여 잔당을 조사하고 있다. 대강 이를 합하면 30명 내외를 검거할 것이다. 체포된 자 가운데 중요한 인물은 다음과 같고, 이외 많은 각도의 지부장이 있다.

경성부 회장 기독교 장로파 정신여학교 교사 김마리아(金瑪利亞, 26), 동서기 신의교(辛義教, 22)[신의경의 오기], 동 재무부원 장선의(張善義, 24)[장선희의 오기], 동 서기 김영순(金英順), 세브란스 간호부 이정숙(李貞淑, 22), 택사장(澤死長)[결사장의 오기] 기독교 남감리파 배화여학교 교사 이성완(李誠完, 23).<sup>26)</sup>

---

26) 「耶蘇教徒より成る朝鮮婦人陰謀團, 青年外交團の檢舉より内情暴露し十四名逮捕, 首脳は妙齡の女教師連」, 『東京朝日新聞』, 1919.12.19.

이 신문의 보도 역시 『미야코신문』과 대동소이한 기초를 이루고 있었다. 비록 신의경과 장선희의 성명과 결사장을 ‘택사장’으로 오기했지만, 일본의 주요 일간지인 『도쿄아사히신문』이 김마리아를 비롯한 조선 여성 개개인의 성명을 독립 운동의 주체로서 기재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도쿄아사히신문』과 쌍벽을 이루는 일본의 주요 일간지로 1874년부터 발행되고 있던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역시 애국부인회 사건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도 12월 20일 「조선의 대음모단, 뿌리채 파괴되다. 비밀 결사의 내부사정 폭로하여 주모자 등 검거, 특히 주목해야 할 부인의 활동」이라는 소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조선 대구부 내 기독교인 부인 중 애국부인회의 명의로 비밀리에 조선 독립 자금을 칭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음을 알아내고, 총독부 경무국이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올해 4월 이래 각도의 불량선인을 규합하여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본부를 경성에 두고 각도에 지부를 설치하여 독립운동에 힘썼다. 한편으로 이와 상관관계에 있는 불량선인의 남자 조직인 청년외교단이라 칭하는 비밀결사 역시 동일한 계획 아래 독립운동을 하고 있음이 판명되어, 관계자와 그 물증의 소재 파악에 진력했다. 경성의 기독교인 이점규의 가택 조사 중 땅 속 깊이 파묻은 항아리에서 유력한 비밀문서를 발견 압수하고, 27일부터 29일까지 청년외교단 총무와 기타 간부, 그리고 이하 8명의 애국부인회 회장, 지부장 등 기타 20수 명을 체포하여 대구로 호송하고, 미체포자의 검거를 계속하고 있다. …… 한편 애국부인회의 유력한 관계자로서 체포된 자는 총재 현재 부장 호원간(護元幹, 31세) [오현관(吳玄觀)의 오기], 회장 여학교 교사 김마리아(キンマリア, 26) 외 6명이다. 특기할 점은 소요사건 이래 늘 문제의 초점에 있던 미국인 경영의 경성 세브란스병원 내의 간호부가 다수 관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성은 물론 평양, 대구 등 각지의 운동에는 언제나 이들 간호부가 관계되고 있는 것이다(경성 전보).<sup>27)</sup>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요미우리신문』도 다른 신문과 그 논조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 재조선 선교사를 문제시하여 일본 내에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조선 여성의 주체성을 평가절하하려는 것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김마리아의 성명을 한자 표기가 아닌 ‘キンマリア’라고 가타가나로 표기하여 그 이름의 정확한 일본식 발음을 명기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서는 『고쿠민신문(國民新聞)』,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 『요로즈초호(万朝報)』, 『미야코신문(都新聞)』,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등 다섯 종의 신문이 총 여덟 편의 기사를 통해 대한민국애국부인회와 김마리아에 대해 보도했다. 이들 다섯 언론은 비록 그 지향점과 논조에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한 차이가 김마리아 관련 보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공통적으로 이들 기사는 주로 미국 선교사들이 설립한 세브란스 병원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며, 3·1운동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교사 배후설’을 주장함으로써, 조선인의 정치적 주체성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일본인들의 뿌리 깊은 선입견을 드러냈다. 그러나 일부 인명과 단체명의 오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마리아를 비롯한 조선 여성 운동가들의 성명이 구체적으로 일본 주요 언론 매체 지면상에 거명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는 종래의 일본 신문이 조선 여성과 관련된 기사를 쓸 경우, 여성들을 개개인의 주체로서 그 이름을 호명하기보다는, ‘여학생’ 혹은 소속 학교나 단체의 이름으로 탈개인화된 불특정 다수의 집단으로 뭉뚱그렸던 것과는 대비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할 때, 김마리아와 그가 주도한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은 일본 사회가 비로소 조선의 여성들을 항일 저항운동의 주체로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임에 다름 아니었다.

---

27) 「朝鮮の大陰謀團，根底より覆る。秘密結社の内情暴露して主謀者等檢舉する，特に注目すべき婦人の活動」, 『讀賣新聞』, 1919.12.20.

#### IV.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에 대한 조선 언론의 반응

위에서 살펴본 일본 언론의 경우, 각 언론의 운영 철학과 특징이 상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이가 김마리아 관련 보도의 논조의 차이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해보았다. 반면, 이제부터 살펴보는 바와 같이 조선의 언론은 각 언론사의 특징에 따라 김마리아의 행보를 보도하는 관점이 크게 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에 대해 가장 먼저 보도한 조선의 신문은 당시 유일한 한글 신문이자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서의 성격이 짙었던 『매일신보』였다. 『매일신보』는 「가경(可驚)할 비밀결사」라는 소재목을 달아 1919년 12월 19일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경상북도 제3부에서는 지난 11월 상순 대구부내의 예수교 부인 중 애국부인회의 명의로 비밀리에 조선독립자금이라 칭하고 돈을 모집함을 탐지하고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하여 금년 4월 이래 각 도의 불온 부인으로서 애국부인회라 칭하는 일종의 비밀결사를 설립하여 근거[지]를 경성에, 각 도에는 지부를 설치하여 몰래 활동하여 독립운동에 분주하고……다음날 29일 즈음에 청년외교단 총무, 그 밖의 간부이사 8명, 애국부인회 회장, 지부장, 그 밖의 20여명을 체포하여 대구에 호송하고 계속하여 체포하지 못한 자의 검거를 계속하였는데 이 두 비밀결사는 다른 사건과도 관계가 있어서 사태가 극히 뒤엉켰을 뿐만 아니라……이병철은 예수교부인이 조직한 대한애국부인회의 고문이 되어 같은 모임과 자주 연락하여 불온사상의 선전에 노력하고……28)

---

28) 「可驚할 秘密結社, 男女의 獨立陰謀團, 大韓獨立青年外交團, 大韓獨立愛國妾人會, 畢竟은 其根據根絶, 十六日慶北第三部發表」, 『매일신보』, 1919.12.19.

『매일신보』의 기사에는 애국부인회를 ‘예수교 부인’들을 중심으로 한 ‘불온 부인들의 비밀결사’로 규정하는 조선총독부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여성들의 비밀결사에 대한 총독부의 당혹감과 경악도 ‘가경할 비밀결사’라는 제목에서 잘 드러난다. 더불어 같은 시기에 검거한 청년애국단의 총무 이병철이 대한민국의국부인회의 전신인 대조선부인회의 고문인 것과 관련하여 두 단체를 상호 연관된 단체로 보도했는데, 이러한 논조에는 독립운동의 주체로서 여성들의 정치적 역량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당시 일본 지배자의 여성인식이 반영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12월 27일 상하이에서 발간되는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도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각지에 지부를 두어 사업의 진보가 날로 왕성하는 애국부인회는 요새 일부의 서류를 적에게 빼앗겨 대구 적의 경찰의 손에 그 간부의 일부가 체포되었다. 그 중에는 유학한 황에스터, 김마리아 여사를 비롯하여 신의경, 장선희, 김영순, 이정숙, 이성완 등 30명 내외의 표령의 부인이 있고 일본인은 그 후에 서양 선교사 부인이 있다고 말하였다.”<sup>29)</sup> 활발히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애국부인회의 체포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여성독립운동가의 안위를 염려하는 이 기사는 12월 19일자 『매일신보』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 또한 청년외교단과 관련 있는 단체로 보는 일본 측의 발표를 그대로 전하고 있었다. 이후 1920년 1월 1일자 『독립신문』의 「양 단체가 타격을 수(受)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끝으로, 애국부인회와 청년외교단이 긴밀한 관련이 있는 단체라는 보도 시각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sup>30)</sup>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국부인회가 김마리아에 의해 일신된 여성 주도의 조직이며 독자적인 목적과 독립운동의 방향성을 지향한다는 사실이 점차 널리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9) 「愛國婦人會幹部被捉」, 『독립신문』, 1919.12.27.

30) 「兩團體가 打擊을 受함」, 『독립신문』, 1920.1.1.

더불어 『독립신문』은 대한민국의애국부인회의 배후에 미국 여선교사가 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었다. 사실 ‘선교사 배후설’은 3:1운동을 조직하고 진행했던 조선민족의 주체성을 부인하며 이 운동을 미국 선교사들의 선동에 의해 발생한 운동이라고 폄하하려는 일본 측의 일관된 시각이기도 했다.

해를 넘겨서 『매일신보』는 1920년 1월 19일 「대한애국부인회의 검거와 취조 종결」이라는 소재목으로 이 사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사를 실었다.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대한애국부인 회원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검사국과 기타에서 자세히 취조를 마쳤었는데, 그들의 계획은 매우 큰 규모이니 조직이 대단히 정돈되어 13도에 있는 본부 지부가 서로 연결되어 큰 활동을 하면 그 모임을 실로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실로 큰 죄를 범할 것이요, 더욱이 그들은 여자의 몸으로써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이러한 계획을 꾸렸다……사회의 상태는 이 운동에 종사하는 자를 열녀(熱女)와 같이 칭찬함으로 허영심으로 일시에 이렇게 되는 것이니 소위 시체의 경우가 가진 죄도 적지 아니하다. 총독 각하는 너그러워 부인회의 죄과에 대하여 우려함이 매우 크며 또 사법당국자도 또한 그들의 죄 상을 진실로 미우나 그 심사는 대단히 가련함이 있음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대하여 형벌을 내림에는 상당히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하고 자비심으로 너그럽게 처치하기로 하였다. 곧 김마리아, 황에스터 등 아홉 명의 죄상이 가장 현저하므로 기소하고 다른 사람은 범죄 사실이 명백하나 특별히 용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본 건은 부인회 범죄인고로 체포는 물론이요 심문함에도 주의하여 친절하게 대우하고 온당하게 심문하여 임의로 말을 하게 하였다.<sup>31)</sup>

이 기사는 과거 독립운동을 남성들이 전담했던 것과 달리 애국부인회 활동에 이르러서는 “여자의 몸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계획을” 세운

---

31) 「대한애국부인회원의 검거와 취조 종결, 황에스터 마리아 등 9명, 이외엔 모두 특히 용서해, 감옥하고 총독각하의 인자」, 『매일신보』, 1920.1.19.

점에 경악했다는 점과 이러한 여성들의 자각과 독립운동의 주체로서의 각성을 조선 사회가 “털녀와 같이 상찬”하며 환호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또한 점차 조선 사회 내의 여성들까지도 독립운동의 주체로 각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기 시작한 조선총독부가 이 사건은 부인들의 범죄이므로 “너그러운 자비심”으로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우하고 온당하게 심문했다”는 점을 홍보함으로써 민심을 진정시키고자 했다. 또한 이 기사는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지도자들이 미션스쿨에서 교육받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후로 외국인이 조선인을 지도함에 더욱 간절히 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경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기독교 선교사와 목사는 그 교도를 훈화할 적에 기독교와 같이 그 나라에 들어서는 국법을 지키어 선량한 백성을 양육하기에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총독부의 요구를 개신교 선교사들에게 전하고 있었다. 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폭압을 주시하고 있던 재조선 외국 선교사들의 존재에 대해 총독부가 느꼈던 불편함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3·1운동의 영향 속에서 1920년 3월 5일에 『조선일보』가, 또 같은 해 4월 1일에 『동아일보』가 각각 창간되자, 이 사건에 대한 조선 언론의 보도 내용은 더욱 풍부해졌다. 『동아일보』는 1920년 4월 24일 「애국부인회사건 예심을 마치고 공판에 부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약 5개월 전의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했다.

작년 9월에 김마리아가 수령이 되어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대대적으로 조선독립운동을 계획하던 애국부인단은 당국에 체포되어 대구로 압송되었다는 것은 세인이 기억하는 것과 같다. 그 후 대구지방법원 오이에(尾家) 예심 판사의 손에 오랫동안 취조 중이더니 이번엔 필경 유죄로 결정되어 근간에 동(同) 법원 공판에 부쳐질 것인데 대한애국부인회는 대부분 20세 이상에서 30세 이하의 꽃 같은 여자로서 그와 같이 대담하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였으므로 세상의 이목을 놀라게 하던 문제여서 아래에 그 사실을

대강 보도한다.<sup>32)</sup>

애국부인회 사건은 “20세 이상에서 30세 이하의 꽃 같은 여자로서 그와 같이 대담하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여 세상의 이목을 놀라게 한 사건이라고 소개하는 이 기사를 통해, 당시 조선 사회가 정치 주체로서 각성한 여성의 정치적 역량을 확인하고 이에 놀라고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꽃’이라는 비유를 통해 당시 조선 언론인들이 김마리아와 같은 여성 운동가의 존재가 여전히 남성들이 주류가 되는 독립운동의 흐름 속에 매우 희소하거나 혹은 장식적인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굳이 이러한 상황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소급하여 평가해보자면, 분명히 여성의 주체성에 경탄하면서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서는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던 당시의 과도기적인 성인지 감수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애국부인회 사건에 대한 조선 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때, 김마리아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동아일보』는 1920년 5월 19일 「대구 옥중(獄中)의 김마리아 위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대한애국부인단 수령 김마리아는 작년 9월에 체포된 후로 여러 달 동안 옥중에서 신음한 결과 영양이 불량하여 병이 나서 그동안 미음과 우유로만 겨우 목숨을 이어가더니 근래에는 병세가 더욱 심해져서 미음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벌써 이틀 동안이나 절식을 하였는데 생명이 위태하다고 한다(대구 18일 특전).<sup>33)</sup>

『동아일보』는 곧이어 「병상에 누운 김마리아」라는 제목으로 6월 2일에서

---

32) 「애국부인회사건: 예심을 맞치고 공판에 부쳐」, 『동아일보』, 1920.4.24.

33) 「大丘獄中の 金瑪利亞 危篤」, 『동아일보』, 1920.5.19.

6월 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연재 기사를 내기도 했다. 여성들의 정치적 각성에 놀란 조선 사회는 김마리아의 옥중 투쟁과 위중한 병세에 뜨거운 관심과 동정을 보냈던 것이다.

비단 국내에서만뿐만 아니라, 해외 조선인 사회 내에서도 김마리아에 대한 관심은 지대했다. 1920년 6월 1일자 『독립신문』 기사는 그의 병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세히 보도했다.

내지(內池)에서 오는 소식에 의하면 애국부인회 수령으로 지난 겨울에 체포되어 대구감옥에 수감 중이던 김마리아 여사는 옥중에서 적의 악행으로 인하여 중병을 얻음으로 방금 보석 되어 대구병원 입원 치료 중인데 그 병의 원인은 심문 당할 때 머리뼈를 몹시 맞아 피와 고름을 쏟았고 그 후에 다시 거듭 난타를 당하여 뇌의 일부까지 고름이 생겨 도저히 회복의 가망이 없는데 여사는 병석에서 혼수상태 있다고.

여사는 올해 29세인데 정신여학교, 여자대학(동경) 등의 출신이라. 여사와 같이 수감 중이던 백신영 여사도 병으로 보석 치료 중이라고, 국내 각 신문지는 김여사를 위하여 애석의 뜻을 표하였으며 일본인의 가혹한 형벌에 대하여 강경한 비난을 향하다.

여사와 면회한 이의 말에 의하면 여사의 신체는 쇠약의 극에 달하여 차마 보지 못하겠으며, 이에 따라 정신도 전혀 혼미 상태 있어 도저히 살길이 없다 하며, 그 말을 전하는 자마다 눈물로써 하지 않음이 없다.<sup>34)</sup>

심지어 19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인 교민단체 ‘대한국민회’의 기관지인 『신한민보』도 이역만리 떨어진 고국에서 김마리아가 겪는 고통에 대해 보도하며 뜨거운 공감을 표하고 있었다.

---

34) 「愛國婦人會首領 金마리아女史 敵의 惡刑으로 重病을 得하여 大丘病院에 入院 治療中」, 『독립신문』, 1920.6.1.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치욕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희망을 우리는 잊을 수 있는가? 잊히지 아니하고 잊을 수도 없느니라 …… 이 불법 수단으로 법률에 형식을 꾸며 무죄한 사람을 유죄인 듯이 학살하고 악형하는 것은 일본 법정에 유일한 살인 수단이라. 실상 이것은 일본 외교의 유일한 변호점이라. 작년 이후에도 지금까지 날로 쓰는 것이 다만 이 수단이며 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죄로 한 번 얹히기만 하면 그 죄를 쓰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니 이 같은 일을 하는 일본도 능히 문명의 이름을 자처하는가.

최근 일에도 일인은 밤낮으로 한인에게 자유를 주나니 자치를 허락한다느니 야단스럽고 요란히 떠들고 자랑하는 동시에 최재형 선생의 부음과 김마리아 여사의 병보가 우리의 귀에 달하였도다.

최재형 선생과 아령, 중령 다른 여러 입국자들은 일병의 무도한 칼 밑에서 강도와 난당의 이름을 쓰고 학살을 당하였으며, 김마리아 여사 등은 머리 속과 전체가 곤죽이 되는 악형을 당하여 그 생명이 구원하기 어려운 지경에 달하였다는데 이는 억지 자복도 주지 아니한 까닭이라.”<sup>35)</sup>

이처럼 김마리아의 병세에 대한 보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여론의 관심, 선교사들의 도움, 그리고 일본 측의 국가적 이미지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인해 김마리아가 보석으로 출감하게 되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신문들은 석방 이후 대구의 선교사 블레어(W. N. Blair) 목사 집으로 거주를 제한당한 채 치료에 임하며 재판을 받게 된 김마리아의 근황에 대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다.

---

35) 「잊을 수 없다」, 『신한민보』, 1920.6.29.

<표 2>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자료

날짜	기관지	제목
1919. 12. 19.	매일신보	가경찰 비밀결사
1919. 12. 27.	독립신문	애국부인회간부 피착
1920. 01. 01.	독립신문	양 단체가 타격을 수함
1920. 01. 19.	매일신보	대한애국부인회원의 검거와 취조 종결
1920. 04. 24.	동아일보	애국부인회사건 예심을 마치고 공판에 부쳐
1920. 05. 19.	동아일보	애국부인단 공판 연기
1920. 05. 19.	동아일보	대구 옥중(獄中)의 김마리아 위태(危殆)
1920. 05. 24.	동아일보	철창에 병이 중(重)한 김마리아
1920. 05. 26.	동아일보	김마리아 보석
1920. 05. 27.	매일신보	허무한 인생의 일상이나 김마리아 병 들었네
1920. 06. 01.	독립신문	애국부인회 수령 김마리아 여사 적의 악형으로 중병을 얻어
1920. 06. 02.	동아일보	병상에 누운 김마리아 (1)
1920. 06. 03.	동아일보	병상에 누운 김마리아 (2)
1920. 06. 04.	동아일보	병상에 누운 김마리아 (3)
1920. 06. 05.	동아일보	병상에 누운 김마리아 (4)
1920. 06. 06.	동아일보	병상에 누운 김마리아 (5)
1920. 06. 07.	동아일보	오늘은 대한청년과 애국부인의 공판
1920. 06. 08.	동아일보	대한외교단과 애국부인회의 제1회 공판 개정
1920. 06. 10.	동아일보	대한청년외교단과 대한애국부인단의 제1회 공판 방청 속기록
1920. 06. 10.	조선일보	대한애국부인단과 대한청년단 제1회 공판
1920. 06. 12.	동아일보	대구에 갔던 일을 김마리아 형(兄)에게
1920. 06. 13.	동아일보	대구에 갔던 일을 김마리아 형에게
1920. 06. 14.	동아일보	대구에 갔던 일을 김마리아 형에게
1920. 06. 15.	동아일보	대구에 갔던 일을 김마리아 형에게
1920. 06. 17.	동아일보	애국부인단 상고재판
1920. 06. 18.	동아일보	대구에 갔던 일을 김마리아 형에게

1920. 06. 19.	동아일보	대구에 갔던 일을 김마리아 형에게
1920. 06. 21.	동아일보	대구에 갔던 일을 김마리아 형에게
1920. 06. 22.	동아일보	대구에 갔던 일을 김마리아 형에게
1920. 06. 23.	동아일보	대한청년외교단과 부인단의 판결연기
1920. 06. 23.	조선일보	애국부인단, 청년단사건 판결연도는 오는 29일
1920. 06. 24.	독립신문	청년외교단과 애국부인단의 제1회 공판
1920. 06. 29.	신한민보	잊을 수 없다
1920. 06. 30.	동아일보	대한청년단과 애국부인의 재판
1920. 06. 30.	매일신보	대한애국부인회와 대한청년외교단의 판결연도, 김마리아는 3년
1920. 06. 30.	조선일보	김마리아 일파 애국부인단 사건과 청년외교단
1920. 07. 03.	동아일보	애국부인단 수령(首領) 김마리아 내경(來京)
1920. 07. 03.	매일신보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김마리아의 병상
1920. 07. 03.	조선일보	애국부인단 사건 피고인 김마리아 병이 위중
1920. 07. 09.	조선일보	어제 8일 이른 아침, 수술을 받은 김마리아
1920. 07. 15.	매일신보	정신에 이상이 생긴 작금의 김마리아
1920. 07. 27.	매일신보	작금에 용모가 급변한 김마리아 병세
1920. 07. 29.	조선일보	병상에 누워 있는 김마리아와 백신영
1920. 08. 01.	매일신보	김마리아, 백신영은 점차 회복
1920. 08. 14.	매일신보	병세가 점점 쾌차 되는 김마리아
1920. 09. 02.	동아일보	병이 쾌(快)하여 김마리아 퇴경(退京)
1920. 11. 09.	매일신보	감옥 속의 김마리아
1920. 12. 01.	매일신보	김마리아 사건 공판기일
1920. 12. 02.	조선일보	애국부인단의 김마리아
1920. 12. 16.	조선일보	15일 아침 급행열차로 김마리아가 대구로 감
1920. 12. 18.	매일신보	김마리아 공소 공판
1920. 12. 18.	조선일보	비밀결사 애국부인회 김마리아 사건 공판
1920. 12. 19.	매일신보	검사는 공소기각을 구형. 애국부인회 김마리아사건
1920. 12. 20.	조선일보	계속 개정되는 애국부인단의 공판

김마리아의 대한민국에국부인회 사건에 대한 조선과 일본 언론의 반응

1920. 12. 28.	매일신보	대한애국부인단 오는 7일 판결언도
1921. 01. 23.	매일신보	애국부인단의 상고 공판
1921. 01. 24.	조선일보	애국부인회 김마리아의 상고
1921. 01. 27.	독립신문	애국자의 아픈 생활
1921. 02. 02.	조선일보	대한애국부인단 김마리아의 상고 공판
1921. 02. 03.	매일신보	김마리아 사건 상고공판
1921. 02. 14.	조선일보	김마리아 사건 판결
1921. 02. 20.	조선일보	김마리아 사건
1921. 03. 05.	매일신보	김마리아 공판기
1921. 03. 29.	조선일보	김마리아의 전지 요양
1921. 03. 29.	동아일보	애국부인단의 상고는
1921. 03. 30.	조선일보	김마리아의 공판은 4월 8일
1921. 04. 07.	매일신보	김마리아 공판기
1921. 04. 09.	동아일보	애국부인단 사건 공판 연기
1921. 04. 22.	동아일보	김마리아 공판은 다음 달 9일에
1921. 05. 10.	동아일보	오래간만에 열린 김마리아의 공판(公判)
1921. 05. 10.	매일신보	김마리아의 공판
1921. 05. 13.	조선일보	김마리아의 언도는 오늘
1921. 05. 14.	동아일보	김마리아는 결국 3년
1921. 05. 14.	매일신보	김마리아는 징역 3년
1921. 05. 19.	동아일보	김마리아 상고(上告)
1921. 05. 28.	동아일보	김마리아 상고 공판 기일(期日)
1921. 06. 17.	매일신보	김마리아 상고 공판
1921. 06. 18.	동아일보	김마리아 판결은 오는 20일에
1921. 06. 20.	조선일보	김마리아의 판결언도는 오늘이지만 병 때문에 출두하지 못해
1921. 06. 21.	동아일보	김마리아는 상고 기각(棄却)
1921. 06. 21.	매일신보	김마리아는 결국 3년
1921. 08. 05.	동아일보	김마리아에게 돌연(突然) 입옥(入獄) 명령
1921. 08. 05.	동아일보	김마리아는 상하이(上海)에

1921. 08. 06.	매일신보	김마리아 탈주설에 대하여 묻노니 너는 지금 어디 있는가?
1921. 08. 06.	조선일보	김마리아 탈주설에 대하여 묻노니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1921. 08. 08.	매일신보	상하이에서 서신이 도착
1921. 08. 08.	조선일보	상하이에서 서신이 도착
1921. 11. 19.	독립신문	김마리아 환영회

그 사이 병이 위중해진 김마리아는 세브란스에 입원하여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그는 미처 회복되진 못한 몸으로 판결에 불복하고 '새벽 급행열차'로 대구로 내려가 백신영과 함께 상고했으며, 인력거를 타고 들어가 대구복심법원 공판 법정에 출두했다. 이러한 김마리아의 모습을 조선의 신문들은 <표 2>에서처럼 지속적으로 동행하며 보도했다. 결국 동일한 판결을 받은 뒤, 김마리아는 백신영과 재차 경성고등법원에 상고했다. 백신영의 상고는 끝내 기각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김마리아에 대해서는 법리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판결을 취소시키고 사건은 다시 경성복심법원(경성고등법원)으로 반환되었다. 김마리아는 투병 중에도 법정 투쟁이라는 형태로 저항운동을 이어가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3·1운동 당시 취조 검사로서 김마리아에게 모진 고문을 가해 그로 하여금 평생의 지병인 메스토이 병을 갖게 했던 가와무라(河村靜水) 검사가 굳이 대구 지방법원으로 전근을 가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을 담당한다는 소식이 조선 사회에 전해지며 이목을 끌었다. 가와무라 검사의 뜻은 “조선에도 교육이 발달되어 여자로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현상”이 팽배하여 위험한 수위에 이르렀으므로 자신이 애국부인회 사건을 직접 맡아 일벌백계 하겠다는 것이었다.<sup>36)</sup> 그는 이 공판에서도 김마리아를 혹독하게 취조한 끝에 다음과 같이 말하며 3년형을 구형했다.

36) 「애국부인단의 상고는」, 『동아일보』, 1921.3.29.

무릇 조선인이라도 일본의 신민이 된 이상 일본의 기반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국적(國賊)이라. 더욱이 김마리아는 여자로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인격과 체질이 비범한 천성을 가졌으므로 그 대담한 태도와 거만한 모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중, 더욱 가중한 것은 본직에게 신문을 당할 때 거만하게 “나는 일본의 연호(年號)는 모르는 사람이라,” 하면서 서력(西曆)의 천구백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의 눈에 일본 제국이라는 것은 없고 일본의 신민이 아닌 비국민적(非國民的) 태도(態度)를 가진 것이다. 이러한 대역무도한 무리에게는 특히 추상열일(秋霜烈日) 같은 형벌을 내려 그러한 인물을 박멸치 아니하면 도저히 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sup>37)</sup>

이렇게 거의 1년에 달하는 그의 법정 투쟁의 일거수일투족이 신문의 지면을 통해 전해지는 가운데, 김마리아는 “독립운동 사건 중에 꽃에도 비하기 어려운” 인물로 높이 평가되며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여성으로 조선 사회에 각인 되었다.<sup>38)</sup> 당시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이 통상적으로 ‘김마리아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김마리아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sup>39)</sup>

그러나 김마리아의 법정 투쟁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 그는 1921년 5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다시 경성고등법원에 상고한다. 뒤이어 같은 해 6월 19일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년형이 확정되었다. 다시 말해, 김마리아는 보석으로 요양 중이었지만 언제든지 다시 투옥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김마리아를 두고 보지 못해 그를 탈출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북장로교 선교사 맥쿤(George Shannon McCune)과 상하이임시정부가 바

37) 「카와무라(河村靜水) 검사의 논고와 구형」, 『동아일보』, 1920.6.11.

38) 「감옥 속의 김마리아」, 『매일신보』, 1920.11.9.

39) 예를 들어, 다음 기사를 보라. 「김마리아 사건」, 『조선일보』, 1921.2.20.

로 그들이었다.<sup>40)</sup> 상하이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은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활동과 김마리아를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대한의 여자는 독립운동의 모든 부문에 빠짐이 없었다. ……점점 자기만의 실력과 지위를 자각하게 되어 ‘우리는 남자의 부속물이 아니요 독립한 인격이다’함을 사실로 증명하게 되었다. …… 애국부인회는 아마 대한부인이 조직한 최초요 최대한 정치적 결사일 것이다.<sup>41)</sup>

결국 맥쿤의 제자이자 임시정부 교통국 참사였던 윤응념의 도움으로 김마리아는 상하이 망명을 시도했다.<sup>42)</sup> 그러나 기력이 쇠할 대로 쇠한 김마리아에게 이 망명 시도는 “배 안에서 정신을 잃은 적이 많았고, 배에 오를 때나 내릴 때 사람들이 들 것에 담아 옮길 정도”로 목숨을 건 거사였다.<sup>43)</sup> 이와 같은 천신만고 끝에 김마리아는 상하이 망명에 성공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더불어 항일 독립운동을 이어가게 된다.

조선총독부가 이 사실을 안 것은 1921년 8월 1일이었다. 병으로 인해 요양 중이었던 그에게 8월 1일 경성복심법원 사토(佐藤) 검사장이 입옥 명령을 내려 이를 집행하고자 했으나 그의 행방이 묘연했기 때문이었다.<sup>44)</sup> 김마리아가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져 사찰 기관들이 당황해하자 언론에서도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매일신보』는 1921년 8월 6일에 「김마리아 탈주설에 대하여 묻노니, 너는 지금 어디 있는가?」라는 소재목의 기사를 실었다.

---

40) 「金瑪利亞密航의 參謀長은」, 『대한매일신보』, 1923.5.20.; 유준기, 앞의 논문, 536~537쪽.

41) 「婦人과 獨立運動」, 『독립신문』, 1920.2.17.

42) 「籌備團長 尹應念」, 『조선일보』, 1927.1.25.

43) 「김마리아 선생의 3·1운동과 감옥생활」, 『신한민보』, 1923.7.19.

44) 「김마리아에게 突然 入獄 명령」, 『동아일보』, 1921.8.5.

본정서(本町署) 고동주임의 말 : 김마리아 행적이 알려지지 않음에 대해서 각 경찰서에서는 수색을 매우 고심으로 활동하는 중인데 상하이로 건너갔다는 것은 풍설이요 아직까지 서울에 있는 모양인데, 혹은 본정 관내에 있는지도 알 수 없다 함으로 본정 경찰서 영목(永木) 고등계 주임을 찾아보고 물어본 즉 김마리아가 행방이 불명한 것은 사실이므로 지금 각서에서 대대적으로 활동하는 중인지 그의 자취를 확실히 알겠는바 본정 관내에 있는 사실상 있지를 아니 하며 혹은 동대문 관내에나 있지 아니한가 생각하오. 세상에는 지금 상하이로 건너갔다는 설이 있으나 나의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병이 완쾌치 못한 사람으로 과연 상하이로 건너갔는지는 의문이오. 김마리아는 요전까지 정신의 이상을 띠고 있었은즉 혹은 수감 명령이 내린 것을 겁을 내어 잠깐 자취를 감추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더라.<sup>45)</sup>

이렇게 일본 경찰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김마리아가 상하이에 도착한 것을 확인해 준 것은 임시정부의 『독립신문』 1921년 11월 19일자 「김마리아 환영회」라는 기사였다.

제작년 3월 이래 국내에서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위하여 많이 활동하다가 적에게 잡혀 무수한 악형을 당하고 마침내 징역의 선언을 받은 후 병원에서 병세를 치료하다가 아직도 치료를 마치지 못한 병든 몸을 이끌고 기회를 틈타 적의 포위망을 탈출한 김마리아는 그동안 상하이에 도착하여 머물던 중 그곳에 있는 우리 애국부인회에서는 지난 15일에 김마리아 여사를 위해 성대한 환영회를 개최하였더라.<sup>46)</sup>

일본 경찰들의 엄혹한 감시를 뚫고 탈출하여 상하이에 도착한 김마리아의 소식에 조선 언론과 사회 전체가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환호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

45) 「金瑪利亞 脫走說에 對하여, 問노니 爾今 安在哉오, 『매일신보』, 1921.8.6.

46) 「金瑪利亞歡迎會」, 『독립신문』, 1921.11.19.

이상의 신문 기사들을 통해 김마리아가 여성 독립운동가의 상징으로서 조선 사회에 강하게 각인되었다는 점을 읽어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조선 민족주의 속에 김마리아로 상징되는 여성들의 주체성이 확실하게 기입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선 사회의 김마리아 인식은 이후 그가 1922년 2월 18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0회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김구와 더불어 황해도 대의원으로 선출되는 데에, 그리고 1923년 3월 8일 임시정부 개혁 문제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서 ‘임시정부 개조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발언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47)</sup> 김마리아는 애국부인회 사건으로부터 12년이 지난 1931년에도 여전히 ‘조선의 잔다르크’로 기억되며 ‘만년불멸로 성좌 속 왕좌를 지키는 별’로서 흠모되고 있었다.<sup>48)</sup>

## V. 맺음말

본고는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아의 생애에 대해 활발하게 축적되고 있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당대 조선 사회와 일본 사회가 각각 그와 그가 주도했던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규명하고자 조선과 일본의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했다. 일본에서는 『고쿠민신문』, 『도쿄아사히신문』, 『요르즈초호』, 『미야코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다섯 신문에 서 총 8개의 기사를 내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과 김마리아에 대해 보도했다. 이들 기사는 김마리아와 애국부인회 인사들이 마치 미국 선교사들에게 선동되어 몰지각하게 독립을 꾀한 것으로 보도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적대

---

47) 유준기, 「김마리아의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애국부인회」, 3·1여성동지회 편, 『한국여성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18, 538쪽.

48) 「백화난만(白花爛漫)의 기미(己未) 여인국」, 『삼천리』 1931년 6월호.

감을 강화시키고 조선 여성의 주체성을 폄하시키려는 논조가 일관적으로 관찰된다. 일본 언론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선교사 배후설’ 내지 ‘선교사 영향설’은 독립운동에 있어서 조선인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조선인의 정치운동을 끝없이 외부에 의해 시주·선동된 운동으로 폄하하고자 하는 일본인의 왜곡된 조선 인식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주요 언론들이 김마리아를 비롯한 조선 여성 운동가들의 성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는 3·1운동 이전 일본 신문들이 조선 여성들을 단순히 ‘여학생’ 혹은 소속 학교나 단체의 이름으로 몽똥그려 다루었던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점에서, 김마리아는 일본 사회가 가진 종래의 조선 여성관에 균열을 일으켰으며, 그가 주도한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조선 여성들을 조선 남성들에 버금가는 독립운동의 주체로서 자각하게 만든 최초의 계기 중 하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국내외 조선인들은 『매일신보』 24편, 『조선일보』 19편, 『동아일보』 37편, 『독립신문』 6편, 『신한민보』 1편 등 총 87편의 관련 보도를 통해 대한민국애국부인회와 그 회장 김마리아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고 있었다. 이상의 기사를 통해 살펴본 바,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이 발발한 직후 언론은 애국부인회의 전신인 대조선부인회의 고문이 청년외교단 총무인 이병철이었음에 주목하여 대한민국애국부인회가 남성들의 지도를 받으며 청년외교단과 모종의 관련을 갖는 단체로 보는 남성중심적인 종래의 인식을 답습하고 있었다. 그러나 1920년이 되어 사건의 전말이 분명해지자, 조선의 언론들은 이 단체가 김마리아를 주축으로 한 여성들이 주도하는 단체일 뿐만 아니라, 종래의 여성 단체와는 달리 임시정부의 독립전쟁론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단체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마리아를 ‘독립운동의 꽃’이라고 불렀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편으로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어디까지나 독립운동이란 남성이 주도하는 거시적 사회운동이며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이라는 관념이 조선 사회 내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과도기의 조선 사회가 갖는 성인지 감수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김마리아와 대한민국의국부인회가 향후 여성운동과 독립운동이 교집합을 이루어가며 전개될 한국근현대사의 일련의 전개 과정 속에서 하나의 원점으로서 부상했으며, 이러한 의미를 당대의 조선 언론들이 포착하고 있었음을 확인해보았다는 데에는 일정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독립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삼천리』

『신한민보』

『조선일보』

『万朝報』

『國民新聞』

『東京朝日新聞』

『讀賣新聞』

『都新聞』

3·1여성동지회 편, 『한국여성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18.

강운정, 「여성독립운동가 남자현의 항일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4, 2018.

김경일, 「식민지 시기 신여성의 미국 체험과 문화 수용: 김마리아, 박인덕, 허정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1, 2006.

김영삼, 『김마리아』, 태극출판사, 1975.

김은실, 「제주해녀의 주체성과 제주해녀항일운동」, 『국가와 정치』 16, 2010.

김정인, 소현숙, 예지숙, 이지원, 『3.1운동에 앞장 선 여성들: 김마리아, 권애라, 김향화, 박자혜』, 역사공간, 2019.

김호일, 「기독교 교육가 김마리아 연구」, 『人文學研究』 36, 2003.

노영희, 「항일운동가, 김마리아의 민족혼에 대한 자각과 실천과정」, 『인문학연구』 7, 2001.

단운 선생 기념 사업회, 『만년 꽃동산 장선희 여사 일대기』, 인물연구소, 1985.

박상준, 「1920~30년대 평양 지역 여성운동의 전개와 성격: 평양여자기독교청년회와 근우회 평양지회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1, 2020.

박용옥, 「김마리아의 망명생활과 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2, 1999.

박용옥, 『김마리아: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했다』, 흥성사, 2003.

- 박은영, 「고쿠민신문에 나타난 3.1운동」, 『일본비평』 21, 2019.
- 신성환, 「여성독립운동가 윤희순의 현실인식과 대응」, 『동양고전연구』 71, 2018.
-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의 연구동향과 현대여성의 역할」, 『민족사상』 5-3, 2011.
- 양현혜, 박은영, 김도형 엮음, 『3.1운동 일본 언론 매체 사료집 세트』(전6권), 홍성사, 2019.
- 유준기, 「김마리아의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의국부인회」, 3·1여성동지회 편, 『한국여성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18.
- 유준기, 「김마리아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보훈논총』 8, 2009.
- 윤정란, 「황애덕과 대한민국의국부인회」, 『승실사학』 22, 2009.
- 이규수, 「3·1운동에 대한 일본 언론의 인식」, 『역사비평』 62, 2003.
- 이달순, 「독립운동과 김마리아」, 3·1여성동지회 편, 『한국여성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18.
- 이배용, 「중국 상해 대한애국부인회와 여성독립운동」, 『이화사학연구』 30, 2003.
- 이선이, 「선각자 김마리아에 대한 선교적 조망」, 『선교신학』 44, 2016.
- 이송희, 「일제 강점기 국내 여성 항일운동의 연구현황과 과제」, 3·1운동 100주년 기념 이화여대 심포지움 『3·1운동, 여성 그리고 이화』(2019.3.15) 미발표 원고.
- 이영재, 「남자현의 독립운동 前史: 이주와 행적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8, 2019.
- 이준식,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여성 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1, 2009.
- 임성규, 「유관순 연구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유관순연구』 11-11, 2007.
- 전병무, 『한국 항일여성운동계의 대모 김마리아』, 역사공간, 2013.
- 하희정, 「3·1운동 이후 기독교의 사회적 실천과 여성 농촌운동: 감리교와 김노득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역사』 48, 2018.
- 황미숙, 「이효덕의 항일민족운동과 절제운동」,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4, 2019.
- 황민호, 「김마리아의 국내에서의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의국부인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9, 2019.

김마리아의 대한민국에국부인회 사건에 대한 조선과 일본 언론의 반응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1, 東京: 原書房, 1967.

---

THE JAPANESE AND KOREAN PRESS COVERAGE ON MARIA  
KIM'S KOREAN PATRIOTIC WOMEN'S ASSOCIATION  
INCIDENT IN 1919

YANG HYUNHYE (YANG, HYUN HYE)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Japanese and Korean societies in late 1910s and early 1920s understood the rise of the Korean female nationalist movement led by Maria Kim (1891-1944) and Korean Patriotic Women's Association (KPWA). The main primary sources of this article are the contemporary newspaper articles such as *Kokumin shinbun*, *Tokyo Asahi shimbun*, *Yorozu Chōhō*, *Miyako shinbun*, and *Yomiuri shimbun* in Japan and *Maeil shinbo*, *Chosun Ilbo*, *Dong-A Ilbo*, *Toklip shinmun*, *Sinhan minbo* in Korea. By analyzing these newspaper reports on the KPWA incident in 1919, this article argues that it was only after the incident that the Japanese society started to, at least implicitly, regard the Korean women as political agents who could participate in the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It also insists that the KPWA incident and the leadership of Maria Kim encouraged the colonial Korean society to incorporate the women in its imagining of Korean nationalism. Although many Koreans was still thinking that the nationalist independence movement should be guided by male elites leaders, it was clear to them that Maria Kim and her colleagues emerged as the powerful symbol of the confluence

김마리아의 대한민국에국부인회 사건에 대한 조선과 일본 언론의 반응

of feminist movement and Korean nationalism.

Key Words : Maria Kim (1891-1944), Korean Patriotic Women's Association, The March First Movement, Korean women's independence movement, Korean nationalism